

外國人合作投資의 特質과 成果에 관한 實證的 研究

* 박 의 범

논문 초 록

국제합작투자의 합리적 근거인 合作性(jointness)을 組織行動論的으로 접근하여 국제합작투자의 特質과 成果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온 국제합작투자의 主要 特質인 寄與(contribution)·參與(commitment) 및 統制(control) 등을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成果와의 相關性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가설검정에 의해 규명하였다.

主要發見은 외국합작선들이 (1) 지식의 욕구, 자본의 용이성 및 인적자원의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寄與를 통해 한국합작선과의 相互信賴性을 구축하였으며 (2) 주로 특수사업활동의 參與를 통해 한국합작선과의 相互信賴性 및 장기적 利益土臺를 마련하였고 (3) 統制程度와 成果間에 陰의 相關性이 확인되어 외국합작선의 통제방식이 支配的(dominant)일수록 利益再投資率에 대한 국내합작선의 滿足度는 낮아진다는 점 등이다.

I. 序 論

J.W.Vaupel 과 J.P.Curhan(1973)은 多國籍企業(multinational enterprise:MNE)이 開發途上國에서 국제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가장 지배적인 企業組織形態가 國際合作投資라고 주장하였으며,¹⁾ F.Contractor 와 P.Lorange(1987)의 조사에 의하면 1986년말 현재 미국기업들의 海外合作投資를 중심으로 한 企業協力契約의 건수가 完全所有

* 江原大學校 經營大學 貿易學科 副教授

1) Beamish, P.W. and Banks, J.C., "Equity Joint Ventures and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ummer 1987, p.1.

경영학 연구 제 18 권 2 호 (1989 년 2 월)

海外子會社보다 약 4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또한 D.A.Heenan과 W. J. Keegan(1979)은 제 3 세계 多國籍企業의 출현이 開途國의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寄與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특징의 하나로 國際合作投資와 라이선싱 등 企業協力(corporation coalition) 方式을 지적하고 있다.³⁾

이처럼 國際企業들의 合作投資活動이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海外直接投資의 일부분으로만 다루어져 多國籍企業理論에서도 독립된 이론으로서의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으며, 國際企業이 새로운 競爭戰略을 추구할 수 있는 戰略的 代案으로서의 合作投資研究도 시작되는 실정에 있다.⁴⁾

최근 市場不完全성과 內部化의 관계를 통해 合作投資를 설명해 보려는 理論的 論議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市場不完全성을 극복할 수 있는 合理的인 根據로서 合作性(jointness) 概念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合作投資의 精緻된 理論으로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組織行動論的인 관점에서 合作投資의 합리적 근거인 合作性を 구성하고 있는 合作特質들과 合作投資企業의 成果間에 相關性이 규명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研究는 지금까지 주로 所有權의 決定要因과 形態에 초점을 맞추면서 寄與(contribution), 參與(commitment) 및 統制(control)라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따라서 企業組織行動論的인 접근을 통해 合作投資의 特質과 成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合作投資에 대한 중요한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本 研究는 이상의 문제의식하에서 다음과 같은 研究目的을 수행한다.

첫째,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直接投資의 進入行態研究(entry mode approach)와 視角을 달리하여 合作投資企業의 管理行態研究(operation mode approach)를 시도하는 일이다.

둘째, 合作投資의 合理的 根據인 合作性(jointness)을 組織行動論的으로 접근하여

2) Contractor, F.J., "Strategies for Structuring Joint Ventures: A Negotiation Planning Paradigm,"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ummer 1984, p.30.

3) Heenan, D.A. and Keegan, W.J., "The Rise of Third World Multinationals,"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1979, pp.107-108.

4) Teece, D.J., "Multinational Enterprise: Internal Governance and Industrial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May 1985, pp.233-238.

合作投資企業에 대한 연구를 확장·심화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合作性的의 諸合作特質과 成果間의 相關性을 外國人合作投資企業을 통해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여 合作特質의 要因을 규명하고 合作投資企業의 成果改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上述한 研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本 研究에서 사용하는 研究方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정한 假說을 검증하기 위해 質問紙를 작성하여 1980.1.1 ~ 1986.4.30 기간에 등록을 마친 159 개의 국내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대한 全數 郵便調査 (mail survey)를 실시하였으며, 質問紙는 調査對象企業을 대표하여 응답이 가능한 核心應答者 (key informant)를 사전에 선정받아 발송하였다.

둘째, 質問紙의 내용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質問項目을 5點 리커트 評價尺度 (Likert rating scale)로 지표화하여 계량적인 측정을 시도하였다.

셋째, 수집된 자료는 그 正規分布性 (normality of distribution)을 확인한 후, 非母數檢定法 (non-parametric test)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要因分析 (factor analysis)을 통해 얻어진 主要指標에 의해 合作投資 諸特質과 合作投資企業의 成果間에 설정된 실증연구의 模型과 假說을 相關分析 (correlation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本 研究의 범위는 이론적인 연구보다 合作投資企業에 대한 管理行態研究의 觀點을 기대하고 있으며, 實證的 研究을 위해 일정기간에 등록한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美國·日本·유럽 등에 위치한 先進企業들의 對 韓國合作投資에 국한시켰다는 점 등이다.

II. 合作投資의 國內研究動向

國際經營學分野의 국내학자 16 명이 1971.1.1부터 1986.12.30 까지 合作投資와 관련하여 발표한 총 22 편의 合作投資關聯 研究論文 중에서 合作投資를 순수하게 다룬 논문은 11 편이다.⁵⁾ 合作投資研究論文 중 우리나라 外國人合作投資에 관한 연구논문이 6 편, 海外合作投資에 관한 연구가 5 편 그리고 나머지 11 편의 논문은 海外直接投資研究의

5) 한국경영학회에서 발간한 韓國經營學研究總目錄(1984)과 創立 30 周年 紀念 學術發表論集(1987)을 중심으로 關聯論文을 살펴 보았음.

일부분으로 合作投資를 다루고 있다.

22 편의 合作投資와 관련된 研究論文 중 論者が 수집한 논문을 合作投資研究와 海外直接投資의 部分研究로 그 내용을 구분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合作投資研究

金鍾英(1972) 教授는 合作投資企業의 기업형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經營經濟의 目標體系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合作投資企業의 投資決定에 대한 기준을 經營, 市場, 生産, 財務 및 工場立地 등 諸側面에서 도출하려고 하였다.

黃大錫(1974) 教授는 첫째, 先進多國籍企業들이 자본수입국인 開途國의 희망과 이익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開途國의 입장에서 借款에 비해 부담이 경감되고 先進諸國의 經營技法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合作投資가 擴大一路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에 비추어 그는 合作投資企業의 經營形態에 관한 理論的 側面을 살펴 보고, 外國人合作投資企業의 狀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合作投資의 不可避性和 前提條件을 고찰하였다.

姜泰景(1981) 教授는 多國籍企業의 發展歷史와 生態的 觀點에서 韓國에 진출한 1개의 韓·日 合作投資企業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그 업체를 통해 多國籍企業의 生態와 經營實績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經濟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韓·日 合作投資企業이라는 점에서 日本型 多國籍企業의 특징을 제시하고 經營事例를 분석하였다. 研究方法은 調查對象企業이 제시한 3개년의 財務諸表와 其他 資料를 토대로 經營實績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原·副資材를 日本에서 수입하여 대부분의 完製品을 日本과 美國에 수출하고 그 일부를 국내에 판매하는 점을 多國籍企業의 특징으로 연구하였다.

金政男(1981) 教授는 多國籍合作投資에 參與하는 合作先企業들은 주어진 經濟的·經營的 조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各 合作先이 추구하는 長期的 또는 戰略的 目標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觀點에서 韓國의 電子産業分野에 참여한 8개 多國籍企業을 중심으로 이들이 기업의 長期的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過程 또는 目標로서의 合作投資戰略을 분석하였다.

鄭求鉉(1982) 教授의 外國人合作投資에 관한 연구는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投資認可를 받은 西獨企業 4 개와 美國企業 2 개를 대상으로 分析對象企業의 간부와 面談調查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合作投資企業의 經營상 특징을 한마디로 『철

저한 合理性』이라고 부르면서, 計劃과 豫算에 의해 집행되고 통제되며 강력한 倫理綱領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향후 1980 년대의 市場與件上 그러한 경영시스템이 국내기업에 비해 양호한 經營實積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潘柄吉(1983) 教授는 製造業分野의 國際合作投資를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雙龍洋灰의 시멘트 海外合作生産戰略과 三星電子의 칼라TV 海外合作生産戰略을 각각 事例研究로써 소개하였다. 그는 國際合作投資를 함으로써 合作先들은 개별적인 기업활동을 할 때 보다 資金支出을 감소시키면서 대규모생산에 의해 低原價를 가능케 하는 시너지效果(synergy effect)를 실현하도록 企業經營을 할 수 있는 固有長點(inherent advantages)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合作投資關聯 研究論文을 검토해 보면 合作投資를 國際經營戰略의 차원에서 분석한 事例研究가 많으나, 체계적인 文獻研究를 통한 理論的 接近이나 統計的 檢定에 의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2. 海外直接投資의 部分研究

海外直接投資研究의 일부분으로 다른 合作投資의 國內研究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鄭求鉉(1980) 教授는 原料確保를 위한 海外直接投資를 다루면서, 後進國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合作投資方式이 유리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合作投資에서는 現地人들의 文化와 事業慣習을 이해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또한 現地人을 지휘할 수 있는 경영자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朴泰夏(1981) 教授는 韓國企業의 多國籍化方向을 모색하면서 現地生産을 위한 海外直接投資의 進出形態는 각종 不確實性과 危險, 資本不足 등으로 合作投資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企業의 資本不足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資源富國 또는 선진국의 기업과 제휴하여 三角協力에 의한 合作投資方式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趙東成(1981) 教授는 韓國中小企業의 海外合作投資事例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現地經營方針의 不在, 紛爭時 對備措置의 缺如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으로 投資事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市場調査, 相對合作先의 信用調査를 통한 事業計劃의 수립과 진출목적에 따른 세부사항의 충분한 事例調査를 合作投資成功의 先行條件으로 제

시하였다.

許南壁(1982) 教授는 우리나라 國際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연구를 통해 合作投資形態의 海外進出이 전업종에 걸쳐 확산되고 있고, 제조업의 경우는 他業種에 비해 長期投資의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合作投資의 증가현상은 收容國側이 撤收方式(fade out) 投資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고, 共同利益과 相互依存의 관계에서만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K. Kumar 와 金基永(1984) 教授의 논문은 1980년까지 발생한 韓國企業의 製造業部門 海外直接投資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거의가 後發開途國에 대한 資料로서 韓國企業이 갖는 獨占的 優位要素는 첫째, 낮은 고정비와 인건비 등 原價面에서의 優位 둘째, 現地與件에 대한 기술과 제품의 적응 셋째, 韓國企業의 우수한 마케팅 능력 등으로 요약한 후, 海外直接投資의 형태가 대부분 合作投資方式임을 지적하였다.

魚允大(1984) 教授는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行態에 관한 實證的인 研究를 통해 韓國企業이 合作投資를 행하는 주된 이유는 現地國이 合作投資를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외국인의 持分을 제한하기 때문이며, 韓國企業은 본시 스스로 合作先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合作先에 대한 자발적인 選擇權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韓國合作先의 合作投資企業에 대한 통제방법은 後發開途國에 필요한 技術提供과 理事會支配에 주로 의존하고 생산제품의 판매를 周旋하는 방식도 이용하고 있다. 韓國合作先은 購買管理, 生産管理 및 技術開發의 部門에서, 現地合作先은 人事管理와 對政府管理의 部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元鍾銀(1986) 教授는 韓國家電産業의 對美 直接投資에 관한 研究에서 市場內部化의 경험이 없을 경우 現地生産工場의 건립을 위한 海外直接投資의 進入戰略은 외국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合作投資의 경우 효율적인 經營管理나 統制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외국비용을 절감하는 대안으로써 매우 유용하다고 보았다.

池龍熙(1986) 教授는 海外投資의 清算實態 및 失敗要因의 분석을 통해 現地合作先과의 분류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海外投資事業을 청산한 H建設會社의 事例를 들고 있다. 合作投資의 기본합의사항에 의해 新規投資, 裝備購入, 人事, 給與, 會計處理方式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合作先間에 상호합의를 하도록 명시하였으나 現地合作先이 이를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였으며, 合作投資當時 技術人力의 90% 이상 韓國人을 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필요한 技術의 習得 후 합의사항을 무시하려고 하여 現地合作投資企業을 청산하게 되었다. 이 事例分析을 통해 韓國企業의 合作投資가

성공하려면 철저한 信用調査에 의해 성실한 外國合作先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上述한 部分研究의 내용은 合作投資研究에 비해 研究의 主題와 方法에 있어서 實證的이고 分析的인 論文이 많으나, 合作投資關聯 研究論文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既存 文獻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이론적인 틀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統計的 檢定에 의한 研究方法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에 관한 實證分析

우리나라의 直接投資는 外國人直接投資와 海外直接投資로 상반된 흐름이 있다.⁶⁾ 전자는 外國企業의 對內直接投資 (inward investment)를 가리키며 1987 년말 현재 現存 認可基準으로 1,444 건에 3,895 백만불이고, 후자는 韓國企業의 對外直接投資 (outward investment)로서 1987 년말 현재 純投資基準으로 534 건, 966 백만불에 달한다. 直接投資에 있어서 外國人直接投資의 累積額이 海外直接投資의 累積額을 4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⁷⁾

그러나 1980 년대에 접어들어 海外直接投資가 점증해 왔으며, 최근 黑字基調의 定着과 企業의 국제화에 힘입어 急增現象을 나타내고 있다.⁸⁾

韓國企業의 合作投資도 直接投資現象과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따라 外國人合作投資 (inward joint venture)와 海外合作投資 (outward joint venture)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外國人合作投資의 실적은 總外國人直接投資 1,323 건 2,887 백만불 중 1,139 건 1,825 백만불로써 건수당 86.1 %, 金額面에서 63.2 %의 높은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⁹⁾

한편 海外合作投資의 경우 總海外直接投資 506 건 633 백만불 중에서 173 건

6) 鄭求鉉, 國際經營學, 서울, 法文社, 1987, pp.46-47.

7) 直接投資는 認可 후 1 - 2년의 기간에 실시된다고 볼 때, 認可는 投資實績의 先行指標라고 할 수 있음.

8) 拙稿, “韓國과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行態에 관한 比較研究” 江原大學校 論文集, 第24輯, 1986, pp.68-70.

9) 1986년 9월말 현재의 現存認可基準으로 財務部 『外國人投資現況(1986.10)』을 참조.

271 백만불로써 건수와 금액상으로 보면 34.2 %와 42.8 %의 비중을 각각 점하고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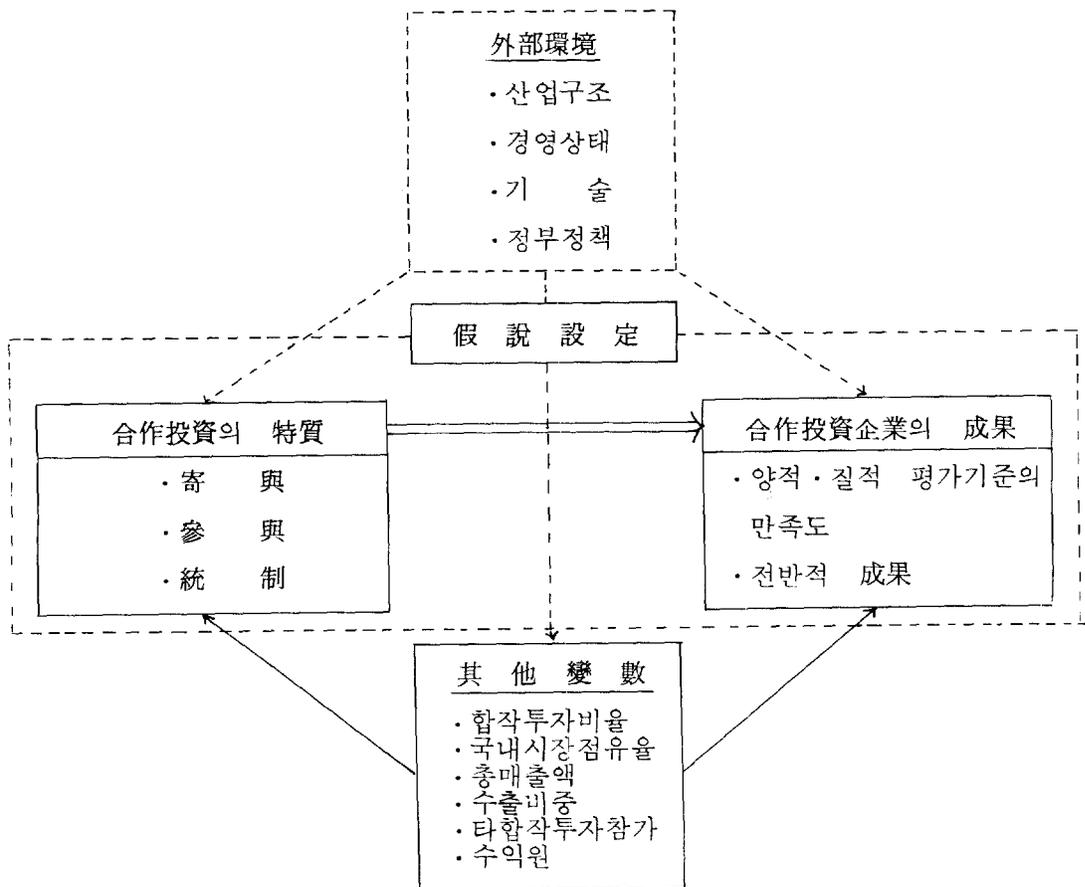
이하에서는 論旨에 따라 우리나라製造業의 外國人合作投資에 초점을 맞추어 研究를 進行하고자 한다.

1. 實證研究의 模型과 假說

本 研究에서 시도하는 實證的 研究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實證研究의 模型



10) 1986년 12월달 현재의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 現況』을 참조.

건수는 現地法人單位의 기준으로 新設과 撤收를 포함하였고, 금액은 投資殘額基準임.

이 모형에는 合作投資의 特質인 寄與 (contribution), 參與 (commitment), 統制 (control) 등의 獨立變數와 合作投資企業의 양적·질적 評價基準에 대한 滿足度 및 전반적인 成果間의 相關性에 관한 假說檢定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實證研究가 현실적인 妥當性을 지니려면 산업구조, 경쟁상태, 기술 및 정부정책 등이 미치는 外部環境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研究對象을 1980.1.1 부터 1986.4.30 까지 認可登錄을 마친 우리나라製造業의 外國人合作投資企業으로 한정하여 環境變數를 사전에 제한한 후 研究를 수행한다. 아울러 질문에 포함한 합작투자비율, 매출액, 수출비중, 국내시장점유율, 타합작투자참여여부 및 수익원 등의 其他變數와의 相關性에 대한 檢정도 보완적으로 수행함을 보여준다.

合作投資의 핵심은 意思決定의 合作性이므로, 만일 특정 合作先이 相對合作先으로부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合作投資形態는 자원의 효율적인 利用方法이 될 수 없다. 文獻研究에서 成果가 높은 合作投資企業의 合作先은 相對合作先의 寄與를 획득하기 위해 특유의 優位를 소유한 合作先을 요구하였으나, 成果가 낮은 合作投資企業의 合作先은 現地合作先이라는 일반적인 조건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 合作先間에 보다 큰 寄與程度가 보다 만족스런 合作投資企業의 成果를 가져온다 ”는 假說의 設定이 가능하다.

參與는 合作投資企業의 成果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成果가 높은 合作投資企業에서 나타나는 參與의 특징은 제품적응, 현지고용인의 증원, 방문 및 지원, 특수기술의 공급과 같은 合作先의 자발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參與活動은 단시일에 개발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Y.Aharoni(1966)는 개별적인 參與와 조직적인 參與에서 情報蒐集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情報蒐集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의사결정, 약속제시 등의 과정에서 參與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合作先의 경험에 의해 參與形態가 固着되는 성향이 있으나 參與의 증가는 항상 가능하다. 따라서 “ 合作先의 參與程度가 클수록 合作投資企業의 成果는 만족스럽다 ”는 假說의 提示도 가능하다.

統制와 成果의 相關性에 관한 實證的 研究에서 J.P.Killing은 統制方式을 支配的 (dominant), 分割的 (shared) 및 獨立的 (independant) 方式으로 구분하였다.¹¹⁾ 獨立的 統制方式을 취하는 合作投資企業이 가장 큰 成果를 나타낸다는 그의 견해에는 학자

11) Killing, J.P., "How to Make a Global Joint Venture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82, pp.120-127.

들 사이에 이의가 없으나, 支配的 統制를 받는 合作投資企業이 分割的 統制를 받는 合作投資企業보다 관리가 용이하고 만족스런 成果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J.W.C.Tomlinson(1970), A.R.Janger(1980), J.A.Cantwell 과 J.M.Geringer (1986) 등이 상이한 觀點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상의 文獻的 考察이 의미하는 바는 支配的인 經營統制와 만족스러운 合作投資企業의 成果間에는 相關性이 陰(-)의 關係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開途國의 표本에서 “相對合作先의 의사결정 통제가 支配的이면 合作投資企業의 成果는 불만족스러울 것이다”라는 假說을 도출할 수 있다.

그밖에 고려할 수 있는 其他變數로는 합작투자비율, 총매출액, 수출비중, 國內시장 점유율, 타합작투자참가 및 수익원 등이 있으나, 本 研究의 목적이 合作投資의 主要特質과 成果의 분석에 있으므로 假說을 설정하는 대신에 그 상관關係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本 研究은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있어서 合作投資企業의 組織行動 特質變數와 成果變數間의 相關性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에서 고찰한 文獻的인 接近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설정하였다.

假說 1 : 相對合作先의 寄與程度가 크면 合作投資企業의 成果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假說 2 : 相對合作先의 參與程度가 크면 合作投資企業의 成果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假說 3 : 相對合作先의 意思決定統制가 支配的이면 合作投資企業의 成果는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2. 研究調查方法

이하에서는 研究模型의 構成概念들을 재정의하고, 조사 및 측정을 위해 설계한 質問紙의 構成內容, 標本選定 및 자료의 蒐集과 分析에 關係 살펴보고자 한다.

2.1 變數의 作業定義

本 研究의 獨立變數는 合作投資의 주요한 特質인 寄與(contribution), 參與(commitment), 統制(control) 등이다.

寄與는 “合作投資企業에 對한 相對合作先의 貢獻”이라고 정의되는데, 合作先이 合作投資企業에 공헌하는 정도는 『寄與程度(degree of contribution)』로 측정된다.

寄與變數를 측정하는 지표는 合作投資企業에 필요한 事項들로서 바꾸어 표현하면“ 合作先들의 欲求(need)”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寄與의 측정은 합작투자 당시, 현재시점, 향후 3년후 등 세가지 시점에서 응답자가 평가하도록 설계하여 動的 測定(dynamic measurement)을 시도한다. 參與란 “ 合作投資企業을 위해 相對合作先이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특별한 活動”으로 정의되며, 參與變數는 相對合作先의 특별활동인 參與事項들에 대한 『參與程度(degree of commitment)』로 평가하여 측정한다.

統制는 “ 合作投資企業의 經營活動部門別 意思決定에 대한 相對合作先의 影響力”이라고 정의하고, 統制變數는 각 意思決定部門에 대한 『統制程度(degree of control)』와 『意思決定의 重要度(degree of importance)』 등 2가지로 평가하여 측정한다.

한편 相對合作先이 合作投資企業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部門別 意思決定方式은 合作投資企業 單獨, 國內合作先 單獨, 國內合作先 / 合作投資企業 共同, 國內 / 海外合作先 共同, 國內外合作先 / 合作投資企業 共同, 海外合作先 / 合作投資企業 共同, 海外合作先 單獨 등 7가지의 방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獨立變數들의 세분화된 質問事項들은 각각 5點 리커트評價尺度(Likert rating scale)方式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인 측정을 위해 각 變數들을 백분율로 재평가하도록 總括測定指標(overall measurement index)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記述的 혹은 選擇的 方法으로 質問紙에 포함시킨 獨立變數는 合작투자 당시의 투자비율, 국내시장점유율, 총매출액, 수출비중, 타합작투자예의 참가여부 및 수익원 등이다.

本 研究의 從屬變數는 合作投資企業의 成果(performance)이다. “ 成果는 特定の 合作投資企業이 合作先의 期待를 충족시키는 能力”이라고 정의하는데 成果變數를 평가하기 위한 量的 基準으로서 연평균 이익·매출액·수출 등의 成長率, 매출이익·투자이익 등의 收益率, 利益配當率, 利益再投資率을 사용하였으며,¹²⁾ 質的 基準으로는 국내경제에의 기여도, 미래지향적인 경험축적, 장기적 이익토대의 마련, 國內合作先의 명성·상표이용, 상호신뢰성의 구축 등을 사용하였다. 成果의 측정은 이러한 評價基準에 대한 『滿足度(degree of satisfaction)』를 5點 리커트評價尺度에 의해 평가하

12) Eiteman, D.K. & Stonehill, A. I., Multinational Business Finance, 4th ed.,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86, pp. 648-654.

였다.¹³⁾

合作投資企業의 전반적인 成果는 ① 國內合作先에만 이익 ② 外國合作先에만 이익 ③ 양측 모두에게 이익 ④ 별다른 成果가 없음 ⑤ 양측 모두에게 손해 등 5가지 成果의 결과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成果와 관련있는 질문사항으로 의견불일치의 경험분야, 合作投資企業에 대한 外國合作先의 수익원, 과거 2년간의 利益成長率 및 賣出額成長率 등이다.

2.2 質問紙의 構成과 標本選定

本 研究調査를 위한 質問紙는 合作投資에 대한 광범위한 文獻調査와 주요 實證研究의 結果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質問紙의 內容은 合作投資의 特質變數를 중심으로 9개 부문 총 53개항의 91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統計分析을 위해 寄與變數 45개항, 參與變數 12개항, 統制變數 24개항 및 成果變數 10개항은 5點 리커트方式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한 후, 평가의 객관성에 관해 백분율로 總括的 測定을 시도하였다.

本 研究는 1980.1.1-1986.4.30 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186개 우리나라 製造業의 外國人合作投資企業 중에서 單獨投資로 바뀐 기업 8개사, 휴폐업 2개사, 연락불통 17개사를 제외한 1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調査對象으로 삼은 159개의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대한 投資國 및 業種別 現況을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現況

(단위 : 개사)

業種別	投資國別	美 國	日 本	유 럽	其 他	합 계
食 品		5(4)	6(2)	1	-	12(16)
纖維·衣類		1(1)	3(2)	1(1)	11(1)	5(5)
製紙·木材		1	2(2)	-	-	3(3)
化 工		7(4)	12(8)	8(5)	-	27(17)
醫 藥		10(5)	3	8(3)	2	22(8)

13) Beamish, P.W., "Joint Venture Performance in Developing Count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London, Ontario, 1984, p.214.

業種別	投資國別	美 國	日 本	유 럽	其 他	합 계
石 油		2	1	1(1)	-	4(1)
窯 業		3	-	-	-	3(0)
金 屬		2(1)	6(2)	3(2)	1(1)	12(6)
機 械		6(5)	19(8)	3(3)	-	28(16)
電氣·電子		6(5)	14(4)	2(1)	-	22(10)
運送用器機		1	4(4)	2(4)	1	9(8)
其他製造業		2(1)	4(2)	2(4)	1	9(4)
合 計		46(26)	75(34)	32(21)	6(2)	159(83)

資料：財務部, 外國人投資企業體名簿(業種別), 1987.6.30 현재에서 작성.

註：() 내는 韓國側 經營管理者의 회신결과치임.

2.3 資料의 蒐集과 分析

本 研究에서 이용한 기본적인 調査方法은 質問紙를 통한 全數 郵便調査(mail survey)이다. 本 調査를 위해 訓練된 조사원이 전화로 調査對象 合作投資企業의 임직원 중에서 核心應答者(key informants)를 선정하였으며, 그들에게 質問紙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수집하였다. 이 調査는 1988.6.4-1988.8.20 에 걸쳐 약 3 개월간 실시되었다. 1988 년 6 월 4 일에 韓國側 應答者를 위한 國文質問紙 159 부, 外國側 應答者를 위한 英文 및 日文 質問紙를 각각 46 부와 43 부 우송한 결과, 1988 년 8 월 20 일까지 회수된 질문지는 國文質問紙가 총 83 부(응답을 52.2%), 英文質問紙 10 부(응답을 17.4%) 및 日文質問紙 6 부(응답을 14.0%)였다.

質問紙의 응답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質問紙의 序文에 응답한 個別會社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質問紙의 발송봉투에는 個人應答者의 表示(personalization)를 하였으며, 우표를 붙인 反送봉투를 동봉하였다. 發信人의 명의를 研究者 本人으로 하였으며, 2 차에 걸친 協調要請書翰(follow-ups)의 발송과 함께 전화와 조사원의 訪問을 병행하였다.¹⁴⁾

14) Kanuk, L. & Berenson, C., "Mail Surveys and Response Rates: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XII, No. V, 1975, pp.440-453.

회수된 質問紙의 분석을 위해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正規分布에 의한 統計分析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母集團의 分布에 대해 특정한 假定이 필요없는 非母數檢定 (non-parametric test) 이 本 研究의 분석에 보다 적절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正準相關分析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을 통해 實證模型을 전반적으로 검정하였으며, 要因分析에 의해 合作投資特質의 信賴度係數를 계산하고 유사한 변수들로 분류하고 요약하였다. 끝으로 相關分析 (simple correlation analysis) 을 이용하여 合作特質과 合作投資企業成果間의 相關性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¹⁵⁾

IV. 分析結果와 假說檢定

1. 統計分析의 結果

2.1 成果變數의 特性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의 成果를 평가하는 기준은 量的 評價基準인 연평균이익·매출액·수출 등의 成長率 (80.7%) 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매출이익·투자이익 등의 收益率 (57.8%) 이다. 그 밖의 量的 基準으로는 利益配當率 (15.7%) 과 利益再投資率 (9.6%) 의 순이다. 質的 評價基準에서는 장기적 이익토대의 마련 (32.5%) 이 가장 많고, 미래지향적 경험축적 (18.1%), 상호 신뢰성의 구축 (16.9%), 국제경제에의 寄與度 (13.3%) 및 國內合作先의 명성·상표이용 (2.4%) 의 순으로 나타났다.

國內合作先이 成果의 9개의 평가기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5點 리커트評價尺度로 측정하였다. 9개의 평가기준은 要因分析이 무의미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上記 評價基準의 選擇比率를 加重值로 주어 要因分析을 행한 獨立變數와의 相關分析 (simple correlation analysis) 을 시도하였다.

15) 당초의 研究방법은 國內合作先의 觀點과 外國合作先의 觀點에서 각각 國文 및 英文 (혹은 日文) 質問紙에 응답하는 2分質問法 (dyadic question method) 을 이용하여 자료를 모집한 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外國合作先 經營管理者들의 회신율이 낮아 國文質問紙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英文 및 日文質問紙는 별도의 要因分析을 시도하였음.

外國人合作投資企業의 전반적인 成果에 관해서는 “양측 合作先 모두에게 이익이다” 는 응답이 63개 기업(80.8%)으로 가장 많고, “별다른 成果가 없다”가 9개 기업(11.6%)이며 “國內合作先에게만 이익이다”와 “外國合作先에게만 이익이다” 는 동일하게 3개 기업(3.8%)으로 나타났다. P.W.Beamish는 양측 合作先 모두에게 이익인 경우의 合作投資企業이 다른 기업에 비해 成功的이라고 보았으나, 本 研究에서는 統計模型으로 부적합하다는 結論을 얻었다. 즉 Beamish의 研究結果를 살펴 보기 위하여 合作投資企業의 전반적인 成果를 成功과 失敗에 따라 判別分析(discriminant analysis)을 시도하였으나 뚜렷한 判別力을 갖지 못하였다. 이는 合作投資企業의 成果를 成功과 失敗로 2분화하여 고찰하는 것이 무리임을 보여주었다.

그밖에 成果와 관련된 一般事項으로는 外國合作先이 우리나라 外國人合作投資企業으로부터 획득하고 있는 수익원은 평균 2개로서, 그 형태는 配當金(32.3%), 原料販賣(20.5%), 로얄티(18.6%), 技術提供手數料(11.2%), 完製品輸入(7.5%) 및 完製品販賣(6.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연평균 利益成長率과 賣出額成長率은 각각 54.8%와 58.6%로서 우리나라 全體製造企業의 2.6%와 13.7% 및 外國人投資企業의 19.1%와 4.0%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¹⁶⁾

2.2 外國人合作投資의 特質分析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있어서 合作特質과 成果間의 개략적인 相關性은 實證模型의 검정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으므로,¹⁷⁾ 本項에서는 最尤度方法(Maximum Likelihood Factor Method)에 의한 要因分析을 통해 諸特質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要因의 갯수는 아이겐 값(eigen value), 要因說明比率(communality) 및 스크리 플롯(scree plot) 등을 고려하여 合作투자 당시 寄與程度(CX) 변수는 2개의 要因, 현재 寄與程度(CY)·향후 3년후 寄與程度(CZ)·參與程度(PART) 및 意思決定 統制程度(DEC) 변수들은 1개의 要因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要因積載量(factor loading)과 要因說明比率의 합을 고려하여 각 변수들의 測定指標를 여과하였다.¹⁸⁾

16) 韓國貿易協會, 外國人合作投資企業實態調查報告, 1987.2, p.21.

17) 正準相關分析(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의 結果值 Wilks' Lambda P값에 의해 本 研究의 實證模型과 假說設定이 有意性을 지닐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구체적 分析을 위한 근거를 개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음.

18) 채서일, 마케팅調查論, 서울, 貿易經營社, 1987, pp.470-477.

이러한 여과방식은 변수들을 주관적으로 취사선택하는 限界性を 지니지만 要因의 集約性を 잘 나타내어 준다. 諸合作特質의 分析結果를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¹⁹⁾

1) 寄與特質

우리나라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대한 外國人合作先의 寄與程度는 “지식의 欲求” “자본의 容易性” “人的資源의 欲求”라는 개념으로 合作投資企業의 成果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시장접근의 欲求”에 대한 集約力이 커질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既存研究에서 나타나는 “정부·정치적 欲求”와 관련한 지표의 集約力은 미흡하였다.

2) 參與特質

外國合作先이 우리나라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참여하는 차원은 合作投資企業管理와 合作投資企業組織에 대한 行動進路의 參與概念보다는 合作投資企業에 대한 母企業經營管理者의 우선적인 參與와 같은 投資事項의 參與概念으로 나타났다.²⁰⁾

3) 統制特質

統制特質의 要因說明比率는 모두 높게 나타나는 바, 外國合作先의 統制活動은 1개의 要因으로 잘 집약되었다. 특히 組織과 人事, 生産과 技術 및 마케팅 등의 부문에 대한 통제지표들이 財務管理나 資材購買部門에 관한 지표들보다 集約力이 높게 나타났다.

2.3 特質과 成果의 相關性

合作特質과 成果의 相關性은 合作投資의 諸特質이 要因으로 요약된 要因點數(factor score)를 계산하여 이들을 合作特質의 要因變數로 한 후²¹⁾ 이 변수들과 成果變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서 合作特質要因變數間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主要合作特質인 寄與, 參與 및 統制가 우리나라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서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지면사정으로 합작투자 당시의 寄與程度(CX), 現在의 寄與程度(CY) 및 향후 3년후의 寄與程度(CZ)에 대한 要因積載量表는 생략하였음.

20) Beamish, P.W., op.cit., pp.44-47.

21) 要因點數(factor score)는 要因點數係數行列(factor score coefficient matrix)을 이용하여 구하며, 모든 要因分析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要因點數를 계산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음.

<표 2> 寄與·參與·統制要因變數間의 相關係數

變 數	CXF1	CXF2	CYF1	CZF1	PARTF1	DCEF1
CXF 1		0.033	*0.628	*0.658	*0.528	*0.461
CXF 2			*0.371	0.185	0.069	*0.327
CYF 1				*0.806	*0.667	*0.570
CZF 1					0.699	*0.597
PARTF 1						*0.445
DECF 1						

註 : *는 P 값 < 0.05 로 유의한 相關係數임.

寄與變數에 대해서는 합작투자 당시, 현재 및 향후 3년후 등 3가지 시점에서 動的 測定을 시도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였으나, 이들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多重共線性 (multicollinearity) 을 해결하기 위해 STEPWISE나 LISREL (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 의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本 研究의 特質變數들은 要因分析을 통해 점수화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情報流失로 분석의 妥當性 問題가 제기될 수 있다. 결국 本 研究의 방법대로 單純相關分析에 충실하고, 향후의 研究方向으로 特質變數들에 대한 개념의 精緻化와 함께 그에 대한 측정방법의 開發이 필요하다.

成果變數指標間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成果變數指標間의 相關係數

成果變數指標	SAT1	SAT2	SAT3	SAT4	SAT5	SAT6	SAT7	SAT8
SAT1		*0.498	*0.478	*0.466	*0.378	0.187	*0.397	0.118
SAT2			*0.778	*0.682	*0.456	*0.258	*0.360	*0.322
SAT3				*0.644	*0.425	0.166	*0.265	0.218
SAT4					*0.453	*0.320	*0.508	*0.392
SAT5						*0.427	*0.473	*0.297
SAT6							*0.671	*0.433
SAT7								*0.334
SAT8								

註 : *는 P 값 < 0.05 로 유의한 相關係數임.

合作投資의 成果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成果變數指標도 우리나라 外國人合作投資 企業에서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대한 合作投資의 特質要因變數와 成果指標間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特質要因變數와 成果指標의 相關係數

成果指標	特質變數	CXF 1	CXF2	CYF 1	CZF1	PARTF1	DEDF 1
SAT1		-0.047	0.153	0.152	-0.012	0.026	-0.067
SAT2		0.010	0.048	-0.056	-0.081	-0.057	-0.078
SAT3		-0.099	0.039	-0.097	*-0.219	-0.118	-0.095
SAT4		-0.125	0.025	-0.132	-0.113	-0.061	*-0.227
SAT5		-0.038	0.154	0.045	-0.115	-0.154	-0.057
SAT6		*0.200	0.154	*0.304	0.187	0.174	0.091
SAT7		-0.021	0.195	*0.219	0.167	*0.199	0.060
SAT8		*0.297	-0.027	*0.296	*0.435	*0.283	0.105

註: *는 P값 < 0.1로 유의한 相關係數임.

寄與要因(CYF1)은 “미래지향적 經驗蓄積(SAT6)” “장기적 利益土臺의 마련(SAT7)” 및 “相互信賴性的 구축(SAT9)”이라는 成果指標와 각각 양(+)의 相關性を 보여준다.

한편 參與要因(PARTF1)은 “장기적 利益土臺의 마련(SAT7)” 및 “相互信賴性的 구축(SAT9)”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統制要因(DECF1)은 “利益 再配當率(SAT3)”과 음(-)의 相關性이 확인되었다.

2.4 其他分析의 要約

1) 合作投資比率과 成果指標·特質要因變數의 相關性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있어서 合作投資比率과 成果間의 相關性を 알아보기 위해 外國合作先의 투자비율에 따라 少數所有權(5% 이상 50% 미만), 同等所有權(50%) 및 過半數所有權(51% 이상 95%未滿) 등 3가지의 所有權形態로 구분하여 9개 成果指標와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 5>과 같다.

自由化措置 前後의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대한 特質要因變數와 成果指標間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自由化措置前後의 相關性比較

自由化措置 이전		自由化措置 이후	
상 관 관 계	분석된 相關關係	상 관 관 계	분석된 相關係數
CYF1 : SAT9	0.381	CXF1 : SAT6	0.304
CZF1 : SAT9	0.440	CYF1 : SAT6	0.345
PARTF1 : SAT9	0.390	CZF1 : SAT3	-0.392
DECF1 : SAT4	-0.348	CZF1 : SAT9	0.352
DECF1 : SAT9	0.280	PARTF1 : SAT6	0.361
		DECF1 : SAT7	0.299

註 : P값 < 0.1로 유의한 相關係數들임.

즉 自由化措置 이전에는 諸合作特質이 “상호신뢰성의 구축 (SAT9)”이라는 成果指標와 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自由化措置 이후에는 그밖에도 “미래지향적 經驗蓄積 (SAT6)” “장기적 利益土臺의 마련 (SAT7)” 등의 成果指標들과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결국 自由化措置라는 제도개편의 효과로서 國內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있어서 成果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양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其他變數로 설정한 총매출액, 수출비율, 國內시장점유율, 타합작투자참여 및 수익원 등과 特質要因 및 成果指標間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나, 國內시장점유율변수만이 2개 이상의 特質要因 및 成果指標와 음과 양의 相關性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國內시장점유율이 크면 外國人合作投資企業의 成長率과 收益性은 만족스러우나, 寄與程度가 작아지고 意思決定統制는 支配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나머지 其他變數들은 特質要因과 成果指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3) 英·日文 質問紙의 分析

이하에서는 外國人經營管理者가 응답한 14개 質問紙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표본의 갯수가 작아 國文 質問紙의 分析技法과 상이한 主成分分析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시도한 결과,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대한 합작투자 당시 國內合作先의 寄與程度는 “지식의 欲求, 人的 資源의 欲求 및 자본의 容易性에 대한 충족”

과 “輸入代替에 대한 政府要求의 충족”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현재는 “人的 資源의 欲求에 대한 충족”과 “국내시장에의 신속한 進入” “저렴한 勞動力” 등과 같은 測定 指標의 集約力이 크다. 향후 國內合作先의 寄與特質도 合作투자 당시와 유사한 개념에 의해 집약될 수 있겠다. 韓國合作先의 參與特質은 특수사업차원의 相對合作先을 위한 自發的 參與概念과 “정례적인 訪問과 協調” “人員·時間·賃金 등의 지원” 과 같은 測定指標에 의해 집약된다. 그리고 統制特質은 “資材購買, 生産管理, 勞働政策, 人事管理 및 組織構造” 등의 部門을 통해 집약된다.

한편 英·日文 質問紙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特質要因變數와 成果指標間의 相關係數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特質要因變數와 成果指標의 相關係數 (英·日文 質問紙)

區 分	CXF 2	PARTF 1	DECF 1
SAT 1	*0.642	0.031	-0.240
SAT 2	*0.642	-0.097	-0.070
SAT 3	0.227	0.227	-0.031
SAT 4	*0.702	-0.248	-0.037
SAT 5	0.502	-0.721	-0.634
SAT 6	*0.694	*-0.559	-0.447
SAT 7	*0.726	-0.487	-0.169
SAT 8	0.448	-0.453	*-0.477

註 : * 표는 P 값 < 0.1 로 유의한 相關係數임.

2. 假說의 檢定

假說檢定の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期待係數符號와 有意性이 확인된 分析相關係數가 假說 3의 CZF1 : SAT3에서만 불일치하고 나머지 모든 檢定內容에서 일치함을 보여 준다.

<표 8>

假說檢定の 結果要約

假說	檢定內容	期待係數符號	분석된 相關係數	P 값	분석결과의 一致如否
	CXF1 : SAT6	+	0.200	0.099	一致
	CXF1 : SAT9	+	0.297	0.014	一致
假說 1	CYF1 : SAT6	+	0.304	0.012	一致
	CYF1 : SAT7	+	0.219	0.078	一致
	CYF1 : SAT9	+	0.296	0.015	一致
	CZF1 : SAT3	+	-0.219	0.085	不一致
	CZF1 : SAT9	+	0.435	0.002	一致
假說 2	PARTF1 : SAT7	+	0.199	0.099	一致
	PARTF1 : SAT9	+	0.283	0.017	一致
假說 3	DECF1 : SAT4	-	-0.227	0.071	一致

이상의 假說檢定을 통해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있어서 諸合作特質과 成果間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P 값 < 0.1로 有意性を 지니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外國合作先들은 우리나라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대해 지식의 欲求, 자본의 容易性 및 人的資源의 欲求 등을 합작투자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상호신뢰성의 구축” “미래지향적인 경험축적” 및 “장기적인 이익토대의 마련” 등 外國人合作投資企業의 質的 成果指標에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또한 外國合作先이 우리나라 外國人合作投資企業에 參與하는 차원은 行動進路의 參與가 없는 特殊事業의 參與로서 合作投資企業에 대한 우선적 관심도, 정례적인 訪問과 協調, 人員·時間·賃金 등의 지원, 특수기술의 支援摸索 등 外國合作母企業 經營管理者의 우선적인 參與活動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參與特質과 成果間의 相關性은 “장기적인 이익토대의 마련” 이나 “상호신뢰성의 구축” 등과 같은 質的 成果指標에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外國合作先의 통제활동은 組織과 人事, 生産과 技術 및 마아케팅부문을 통해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統制程度와 成果와는 음의 相關性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意思決定의 統制方式이 이러한 부문에서 支配的(dominant) 일 수록 “利益再投資率”이라는 量的 成果指標는 불량하게 나타났다.

V. 結 論

本 研究의 結果로 寄與 / 成果에 관한 假說 1개, 參與 / 成果에 관한 假說 1개 및 統制 / 成果에 관한 假說 1개가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本 研究는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 合作投資에 있어 合作投資 特質과 成果間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규명하였다. 그 相關性을 요약하면 ① 外國人 合作先들은 知識의 欲求, 資本의 容易性 및 人的 資源의 欲求에 대한 계속적인 寄與를 통해 韓國 合作先과의 相互 信賴性을 구축해 왔으며, 앞으로 市場接近의 欲求에 대한 外國 合作先의 寄與程度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外國 合作先들은 주로 特殊事業의 參與活動을 통해 韓國 合作先과 相互 信賴性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이익토대를 마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③ 外國 合作先들의 統制程度와 成果間에 음의 相關性이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 製造業 外國人 合作投資企業에서는 外國 合作先의 統制方式이 支配의 일수록 利益投資率에 대한 國內 合作先의 滿足度는 낮아진다는 점 등이다. 이 밖에 合作投資比率와 成果指標와의 相關性은 X^2 -檢定の 결과 利益再投資率을 제외하고는 統計的 有意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所有權形態와 合作投資企業 成果間의 相關性分析이 적절치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合作投資比率와 特質要因變數·其他變數들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相關係數가 나타나서 향후 深層研究가 기대된다. 그외 其他變數들은 特質要因變數와 成果指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本 研究의 結果는 合作投資의 特質變數와 測定指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 指標가 成果와 相關性이 있음을 인식시켜 장단기적 관점에서 合作投資企業의 成果改善을 위해 關聯當事者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成果提高를 위해 相關性이 높은 과거 및 현재의 寄與指標들을 계속 활용하는 한편, 향후 相對 合作先의 寄與指標가 合作投資企業의 成果改善으로 나타나도록 合作投資企業의 經營戰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合作投資企業의 신설을 위해서는 國內 合作先들이 보유한 寄與特質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후, 장기적 관점에서 合作投資企業의 欲求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外國 合作先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參與도 合作投資企業의 成果를 제고시키는 변수이므로 特殊事項의 參與뿐만 아니라 行動進路次元의 參與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本 研究에서 統制程度와 成果滿足度間에 음의 相關性이 확인되었으므로 外國 合作先의 部門別 意思決定統制가 分割的 (shared) 내지 獨立的 (independent)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교섭과정이 필요하다.

그밖에 要因分析過程에서 제외된 測定指標들도 合作投資企業의 成果提高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本 研究에 연계하여 기대되는 향후의 研究課題로는 다양한 多國籍企業理論을 合作投資現象에 擴大·適用시키는 合作投資의 理論的 摸索과 함께 2分 質問法(dyadic question method)에 의해 兩側 觀點을 동시에 고찰하는 實證的 研究, 對內(inward joint venture)와 對外(outward joint venture) 合作投資現象에 대한 産業別·國別 實證研究와 事例研究 및 合作投資의 特質과 成果에 관한 概念定立과 測定方法의 研究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本 研究에서 일별한 바 있는 合作投資比率과 特質變數要因의 相關性 및 制度改編의 效果分析도 향후의 研究課題이다.

參 考 文 獻

I. 國內文헌

- 金基永,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合作投資 및 單獨投資)와 技術輸出戰略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産業과 經濟, 第20軸, 1983.
- 朴義範, “韓國과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行態에 관한 比較研究,” 江原大學校 論文集, 第24輯, 1986.
- 魚允大,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行態에 관한 實證的 研究,” 韓國貿易學會 10週年紀念 發表論文集, 1984.
- 元鍾根, “韓國家電産業 對美直接投資 現地生産工場의 經營管理行態,” 韓國經營學會 經營學研究, 第16卷 第1號, 1986.
- 田仁秀, “輸出經路에 있어서 去來構造의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7.6.
- 鄭求鉉, 國際經營學, 서울, 法文社, 1987.
- _____, “國際經營學研究의 趨勢와 評價,” 韓國經營學會 創立30週年紀念, 1987.2.
- 채서일, 마케팅調查論, 서울, 貿易經營社, 1987.
- 商工部·中小企業振興工團, 우리나라 製造業 海外現地法人의 運營實態分析, 1988.8.
- 財務部, 海外投資情報, 86-2(通卷 第10號), 86-5(通卷 第1號), 1986.
- _____, 外國人投資現況, 1986.
- _____, 外國人投資企業體名簿(業種別), 1987.6.30.
- _____, 外國人投資企業實態調查報告, 1987.2.
- 全國經濟人聯合會, “韓·日企業間 産業協力現況과 促進方案(要約篇),” 研究資料 51, 1987.9.
- 中小企業振興工團, “中小企業의 國際産業協力現況分析(合作投資·技術導入),” 財務部 外國人投資企業體名簿(業種別), 1987.6.30.
- 韓國經營學會, 韓國經營學研究總目錄, 서울, 法文社, 1984.
- 韓國貿易協會, “多國籍企業과 우리나라 外國企業投資의 諸問題,” 調查資料 76-5, 1976.3.

- _____, "外國人投資企業의 隘路要因調查," 調查資料 82-29, 1982. 7.
- _____, 外國人合作投資企業實態調查報告, 1987. 2.
-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 現況, 1986. 6.30.
- _____, "最近의 外國人直接投資 動向," 週間內外經濟, 第1350號, 1987. 12.

II. 외국문헌

- Beamish, P.W., "Joint Venture Performance in Developing Count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London, Ontario, 1984.
- _____, "The 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Fall 1985.
- Beamish, P.W. and Banks, J.C., "Equity Joint Ventures and the Theory of Multinational Enterpris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ummer 1987.
- Beamish, P.W., Multinational Joint Ven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Croom Helm, 1988.
- Contractor, F.J., "Strategies for Structuring Joint Ventures: A Negotiation Planning Paradigm,"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ummer 1984.
- Eiteman, D.K. and Stonehill, A.I., Multinational Business Finance, 4th ed.,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86.
- Franko, L.G., Joint Ventures Survival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New York Praeger, 1971.
- Friedmann, W.G. and Kalmanoff, G., Joi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 Heenan, D.A. and Keegan, W.J., "The Rise of Third World Multinationals," Harvard Business Review, Jan. - Feb. 1979.
- Kanuk, L. and Berenson, C., "Mail Surveys and Response Rates: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XII, No. V, 1975.

- Killing, J.P., "Strategies for Joint Venture Success," Internal Documen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1983.
- Killing, J.P., "Joint Venture Stability," Working Paper 211,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Oct. 1978.
- _____, "How to Make a Global Joint Venture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82.
- Raveed, S.R., "Joint Ventures between U.S. Multinational Firms and Host Government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A Case Study of Costa Rica, Trinidad and Venezuela," DBA Thesis, Indiana University, 1976.
- Schaan, J.L., "Parent Control and Joint Venture Success: The Case of Mexico,"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London, Ontario, 1983.
- Stopford, J.M. and Wells, L.T., Managi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Organization of the Firm and Ownership of the Subsidiaries, New York, Basic Books, 1972.
- Teece, D.J.,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Internal Governance and Industrial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5 (2), May 1985.
- Tomlinson, J.W.C., The Joint Venture Process in International Business: India and Pakistan,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 Tucker, L.R., and Lewis, C., "A Reliability Coefficient in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38, 1973, pp.1-10.
- Vaupel, J.W. and Curhan, J.P., The World's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Vernon, R., Sovereignty at Bay: The Multinational Spread of U.S. Enterprise, New York, Basic Books, 1971.
- Wells Jr., L.T., Third World Multinationals: The Rise of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ss., MIT Press, 1983.

